

환경교육을 지키는

이진종(李珍鍾) 회장 - 2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3. 환경교육협회의 활동

이진종 회장이 키를 잡은 환경교육협회는 새로운 환경교육 사업개발과 실천에 앞장서 나갔다.

크게 살펴보면, 13년 전인 1994년 8월 충남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에 있는 '삼기초등학교'가 폐교되어 방치되자, 이 학교를 임대받아 환경체험학교로 활용한 것이다. 즉, 이 학교를 청소년수련시설인 환경교육협회 청소년 야영장으로 허가와 등록을 받은 후 교정에 수목원, 화훼포, 작물포, 비닐하우스를 건립하여 유기농채소재배 등을 실시하였고, 이진종 회장의 개인 소유임야와 밭을 개발하여 유실수원을 만들어 자연체험학습장을 조성한 것이다.

이 학습장에는 유기농 체험장, 숲속교실, 육묘실습단지, 향토 수목림, 진달래 숲, 빛나무 길, 식이나무 길, 약용식물원, 삼림욕장, 도토리 교실, 습지원, 생태하천, 생태숲, 효의 숲을 정하여 정성으로 가꾸고 있다.

지난 2005년 7월에는 협회 창립 후 처음 국제 워크샵에 공식 초청받아 환경교육의 정보와 기법 등의 국제교류의 장을 열었다. 즉, 일본환경교육포럼(Japan Environmental Education Forum)에서 주최한 아시아 환경교육 워크샵에 한국대표로는 이진종 회장, 일본 8명, 대만 2명, 인도 2명, 필리핀 3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또한 지난 2005년 12월 21~22일에는 한국환경교육학회 TEEN 한국 사무국이 주최한 제6회 한국, 중국, 일본 3국 환경교육 네트워크(TEEN : Tripartite Environmental Education Network)와 심포지엄이 연세대학교 새천년기념관과 상남경영관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환경체험학교와 자연체험학습장은 그간 많은 노력과 정성으로 가꾼 보람이 있어 소재지인 삼기마을과 함께 농림부와 충청남도의 예산지원사업인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선정되어 2006년에는 생태탐방로와 각종 자연생태학습장 보완과 휴게시설 등이 설치되어 도시민들에게 체험과 농촌관광시설로 개방되었다.

2005년엔 서울시의 지원으로 운영한 환경교육 가이드센터는 자원 활동가 성격으로 환경체험교육 어머니교사를 선발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의 실습과 참여로 실전 능력 배양에 주안점을 두어 서울 시내 초·중등학교와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공공기관과 단체의 환경교육 상담과 자료지원, 출장을 통하여 지도교사에게는 보람을 수강생 및 공공기관과 단체에는 체험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포부도 크데, 현재까지 연중사업으로 실시하던 각종 프로그램도 시대감각에 맞춰 과감하게 개편하고 노력과 투자에 비하여 성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은 취소하거나 축소, 통폐합을 통하여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해, 환경교육협회가 개최한 작품 공모전에서 심사에 참가한 협회 임원. 좌로부터 이진중 회장, 한사람 건너 수필가 박연구 선생, 고문 김준호 박사, 권숙표 박사, 박창근 선생, 최석진 부회장, 한사람 건너 이상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전임회장.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배양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교재를 개발·보급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시연으로 학교 및 환경교육기관에 제공할 것이며, 환경교육정보센터와 환경교육가이드센터를 보다 발전시켜 시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특히, 환경교육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하여 한·중·일 환경교육 네트워크 등 국제교류에 앞장서기 위하여 부설 국제환경교육연구소의 실질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여 실천하겠다는 포부이다.

〈계속〉